

컨벤션개최지 선택속성에 따른 컨벤션도시 경쟁력 평가척도 개발*

권 유 홍** · 이 인 재***

Developing a Measurement Scale of Convention City Competitiveness Focusing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Convention Destination*

Yoo-Hong Kwon** · In-Jae Lee***

요약 : 본 연구는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측정 척도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방법적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측정항목을 개최지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회의 기획가 및 컨벤션 센터 관계자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정제함으로써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로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요인(컨벤션서비스, 개최도시의 관광자원, 개최도시의 유치환경) 1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컨벤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컨벤션 개최와 직접적 관련 있는 회의, 숙박, 식음료 등과 같은 핵심요소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관광자원 및 개최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컨벤션 도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평가지표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있는 컨벤션도시들이 자체 경쟁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척도 개발, 컨벤션도시 경쟁력, 회의기획가, 선택속성

ABSTRACT : A new measurement scale of convention city competitiveness has been developed. The initial set of 24 items were generated from critical literature review. Seven items were removed from the content validity evaluation. The remaining 17 items were pretested to check the reliability through Cronbach alpha and two more items were removed.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mination of the 15 item scale indicated barely acceptable level of fit. The deletion of 4 items improves the fit and provides preliminary evidence of the validity of the 3 factor 11item convention city competitiveness scale. Finally utility and academic implic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cale development, convention city competitiveness, meeting planners, selection attributes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ntion and Events Management,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논문주작성자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교신저자임.

I. 서론

컨벤션산업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형 관광산업이다(한국관광공사, 2002). 그러나 9.11 테러, 이라크전쟁, 조류독감 등 일련의 악재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화상회의의 보편화 등은 컨벤션산업의 성장을 둔화시켜 2004년 국제회의 건수(9,160건)는 1997년 수준(9,273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2 & 2005)¹⁾.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 이어 2005년 경기도 고양, 광주, 창원 등 주요 도시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오픈됨으로써 국제회의의 유치에 위한 컨벤션센터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재균, 2003; 한국관광공사, 2005; Go and Govers, 1999; Go et al., 2002; Price and Becker, 2002; Weber and Chon, 2002).

컨벤션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은 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은 물론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Oppermann and Chon, 1997). 개최장소의 선정문제는 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과 함께 많은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으나(Ladkin, 2002; Weber, 2001), 개최지 선정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단계 및 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Clark and McCleary, 1995; Crouch and Ritchie, 1998; Go and Zhang,

1997). 특히 협회가 주관하는 컨벤션의 참가자는 회의내용은 물론 교통, 비용, 관광 등 개인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Oppermann and Chon, 1997)하기 때문에 회의기획가는 참가 대상자를 관광자로 인식하여(Judd, 1995; Oppermann, 1996) 그들의 여행참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목적지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은 대부분 회의기획가의 개최지 선택속성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전재균, 2003; Baloglu and Love, 2005; Go and Govers, 1999; Oppermann, 1996).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이란 컨벤션을 유치하는 경쟁상황에서 다른 후보지를 물리치고 개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볼 때, 회의기획가는 도시 간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해야 하는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Clark et al., 1996; Crocker, 1990)²⁾. 이러한 맥락에서 Go and Govers(1999)는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회의기획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벤션서비스를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게 기획, 생산, 마케팅하고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측정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방법적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측정항목을 개최지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회의기획가 및 컨벤션 센터 관계자의 실증자료를

1) 한국관광공사(2002, 2005)에서 재인용함.

2) Clark et al.(1996)은 황희곤·김성섭(2003)에서 재인용하였고, Crocker(1990)는 전재균(2003)에서 재인용함.

통하여 정제함으로써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컨벤션 개최와 직접적 관련 있는 회의, 숙박, 식음료 등과 같은 핵심요소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관광자원 및 유치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컨벤션시장을 협회(associations) 회의시장으로 제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협회가 주관하는 회의는 전체 회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Crouch and Ritchie, 1998; Oppermann and Chon, 1997), 기업회의와는 달리 개최 장소에 대한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워 컨벤션뷰로(Convention Visitors Bureau: CVB)의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II. 컨벤션 개최지 선정의 기본 개념

1. 컨벤션 개최지 선정과정

협회는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Weirich, 1999). 협회 회의는 구성원 각자가 회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기업회의와 구별되며, 협회 컨벤션시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협회와 회의 개최지(host location), 그리고 잠재 참가자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Oppermann and Chon, 1997).

협회가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다

(Clark and McCleary, 1995).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서 Clark and McCleary(1995)는 조직구매이론(organizational buying theory)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조직구매과정이 문제의 인식 및 이에 따른 초기 대안(evoked sets)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개최장소의 선정에서도 보통 6~8개소의 후보지가 초기 대안으로 거론되며, 개최지의 결정은 협회의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 구매센터(buying center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Crouch and Ritchie(1998)는 개최장소 선정 과정을 계획-실행-평가(pre-action-post)로 이어지는 계획의 기본단계를 응용하여 컨벤션 계획 이전단계로부터 후보 개최지에 대한 분석과 추천단계, 최종 개최지 선정, 컨벤션 개최 그리고 컨벤션 사후 평가에 이르는 5단계로 파악하였다(Crouch and Weber, 2002).

한편 국내에서는 황희곤·김성섭(2003)이 협회 컨벤션의 경우, 대부분 회의기획가에 의하여 개최지가 선정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여섯 단계로 설명하였다. 즉 회의장 위치(환경)의 기준이 되는 ①회의목적을 확인하고, ②회의일정계획이 수립되면 ③회의에 필요한 대략의 물리적 요구사항이 결정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④참가자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고려하여 ⑤개최지역과 시설종류를 선택한 후 ⑥최종적인 평가를 거쳐 개최장소의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 컨벤션 개최지 선정의 기본 틀

회의기획가가 컨벤션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회원들이다. 왜냐하면, 협회 회의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성립되며, 협회가 회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창출(또는 손실의 최소화) 또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Crouch and Ritchie, 1998; Weirich,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노용호(1998)는 회의 기획자가 개최지를 선정할 때에는 회의참가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속성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Oppermann and Chon(1997)은 협회와 회의개최지가 공통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참가자 유치의 극대화’라고 하였다.

회원의 요구와 기대를 토대로 개최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어느 곳에서 컨벤션을 개최하면 보다 많은 회원의 참석과 참가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압축된다. Clark and McCleary(1995)는 이러한 과정을 조직구매자(협회)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재무적인 위험’(컨벤션 참가 저조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결과적 위험’(구매에 따른 심리·기능·물리·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매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Crouch and Ritchie(1998), 그리고 Oppermann and Chon(1997)은 각각 회의기획자 및 참가자의 관점에서 ‘장소요인’(site-specific)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최장소의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으로서는 컨벤션의 목표, 과거의 개최경험, 협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직요인(인적·조직적 변수와 권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모두 개최장소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기 보다는 ‘협회’라는 구매

센터의 운영 및 구조와 관련된 공통적 특성이 있으므로 Crouch and Weber(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협회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Crouch and Ritchie(1998)는 협회의 성격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속성이 다르다는 연구명제를 제시함으로써 ‘협회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현식(2001)과 노용호(1998)도 ‘장소요인’과 함께 ‘협회요인’은 개최지의 선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에는 세 개의 작은 원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협회 회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협회, 참가자와 회의 개최지(Oppermann and Chon, 1997)를 나타낸다. 원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은 이들 구성요소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참가자와 협회가 중복되는 부분은 회원이 회의 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협회 관여에 따른 참가 고려를 의미하며, 협회와 개최지가 겹쳐지는 것은 협회가 갖고 있는 회의 목표나 과거 개최경험에 따른 개최지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박의 건조기술과 관계된 학술회의는 산업체 견학 등을 위하여 내륙의 도시보다 해안에 위치한 도시를 개최지로서 선호할 수 있다.

한편 참가자와 회의 개최지가 중복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가자의 관점에서 회의 개최지를 고려하는 ‘장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원들은 하나의 큰 원 안에 위치한다. 외곽에 있는 원은 환경요인으로서 컨벤션과 관련된 ‘산업환경요인(micro-environment factors)’ 및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환경적 변수 등의 ‘거시환경요인(mac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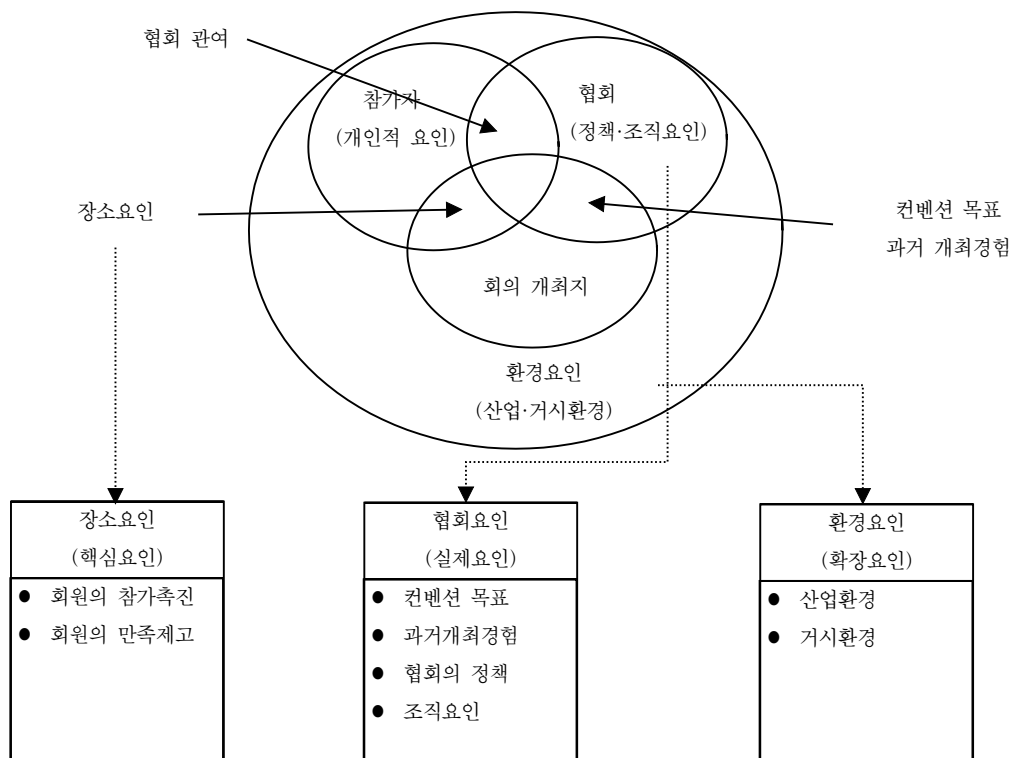
environment factors)’으로 구성된다(Choi, 2002). 결국 이 그림은 ‘장소요인’과 ‘협회요인’은 물론 참가자의 ‘개인적 요인’까지도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논문은 컨벤션도시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의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는 ‘장소요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III. 컨벤션도시 경쟁력 평가척도 개발

1.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컨벤션 개최장소의 선정이 회원의 컨벤션 참가결정 및 실제 참가경험을 통하여 컨벤션

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목적지로서 도시의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Go and Zhang, 1997). 이러한 현상은 컨벤션 개최지 선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선택속성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연구를 모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실용적 해석에만 치중하는 다소 정형화된 연구풍토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Oppermann (1996)은 세 가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15개의 선택속성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시설’, ‘서비스’, ‘비용’, ‘위치’ 및 ‘이미지’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컨벤션 개최지 선정의 기본 틀

Go and Zhang(1997)은 평가기준의 구성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접근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하여 주목된다. 이들은 8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검토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22개의 선택속성을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컨벤션산업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산업적 요소'와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적 요소'로 분류되었다.

Crouch and Ritchie(1998)는 컨벤션장소 선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64개의 기존문헌

을 분석하고,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 운영진의 검토를 거쳐 8가지 그룹, 36개의 항목의 컨벤션장소 선정요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룹분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컨벤션장소가 수익(손실)을 낼 정도', '컨벤션장소가 협회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멤버십을 강화할지의 여부' 등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컨벤션장소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회의기획가의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①~⑨) 및 참가자의 컨벤션 선택속성(⑩~⑬)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표 1>과

<표 1>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 선행연구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합계
회의	회의시설	X	X	X	X	X	X	X	X	X			X	X	11
	서비스	X		X			X		X	X			X	X	7
	비 용	X					X					X		X	4
	전시장							X					X		2
숙박	전반적 질	X					X							X	3
	객 실		X		X	X	X	X	X	X			X		8
	서비스						X	X		X					3
	비 용						X	X		X	X	X	X		6
식음료	전반적 질	X											X		2
	식 당							X							1
	음 식													X	1
	매력성	X		X			X	X				X		X	6
개최지	관광자원		X		X	X	X		X	X		X	X	X	9
	레저/오락기회	X	X		X	X	X	X	X	X	X		X		10
	안전/안정성						X	X	X	X		X			5
	지역의 현대						X			X		X			3
	지역의 지원				X		X						X		3
	이미지		X			X			X	X	X	X			6
	기 후		X		X	X	X		X	X	X		X		8
	접근성(교통)	X	X	X	X	X	X	X	X	X	X	X	X	X	13
	교통비		X		X	X	X		X	X	X				7

출처 : ① Pizam and Manning(1982), ② Var et al.(1985), ③ Leo and Levite(1986), ④ Reed Travel Group(1988), ⑤ Edelstein and Benini(1994), ⑥ Crouch and Ritchie(1998), ⑦ Upchurch et al.(1999), ⑧ 전재균·오홍철(1999), ⑨ 전재균(2003), ⑩ Oppermann and Chon(1997), ⑪ 주현식(2001), ⑫ 김성섭 외(2001), ⑬ 박정화 외(2002)

주 : ①~④는 Go and Zhang(1997), ⑤는 Oppermann(1996), 그리고 ⑧은 전재균(2003)에서 각각 재인용하였음.

같다. 여러 연구에서의 다양한 선택속성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회의, 숙박 및 식음료와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타 부분은 모두 개최지와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개최지 선택속성으로 많이 채택된 변수는 접근성, 회의시설과 레저·오락 기회, 관광자원, 기후 그리고 숙박시설(객실)이며 식음료와 전시장, 지역적 변수(환대와 지원)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호텔의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연구(Meeting & Convention Magazine, 1996: 169)³⁾에서는 식음료 서비스의 질이 협회 회의 개최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나타났으며, 전시회의 경우에도 부스 판매수입으로 회의비용의 일부를 충당함은 물론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 때문에 컨벤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Weirich, 1999). 또한 지역사회의 지원은 특히 국제적인 대규모 컨벤션을 유치할 때 매우 중요하므로(Crouch and Ritchie, 1998) 빈도에 따른 해석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선행연구 가운데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별도로 평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즉 회의기획가는 접근성 그리고 회의와 숙박을 위한 시설적 측면과 서비스 질을 컨벤션 개최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반면, 여러 연구자들이 선택속성으로 활용한 관광자원과 레저·오락기회, 기후에 대하여는 그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회의시설과 숙박공간이 강조된 것은 컨벤션의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회의기획가의 기획과정 참여가 협회의 컨벤션 개최도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Oppermann and Chon, 1997). 또한 국내에서는 호텔을 중심으로 컨벤션 선택속성연구(김성섭 외, 2001; 노용호, 1998; 박정화 외, 2002; Upchurch et al., 1999)가 진행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컨벤션 장소가 회의와 숙박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Crouch

<표 2> 회의 개최지 주요 선택속성(Top 10)

ASAE(1992)	Oppermann(1996)	Go and Zhang(1997)	Go and Govers(1999)	Qu et al.(2000)
서비스의 질	회의시설	접근성	시설 수용력	회의장비
회의시설	호텔서비스의 질	회의설/서비스가격	접근성	접근성
전반적인 가격수준	객실이용가능성	회의시설 이용가능성	서비스의 질	호텔시설
객실	지역의 청결성/매력성	숙박시설 이용가능성	전반적인 가격	회의서비스
지역이미지	안전	첨단회의/전시장비	이미지	호텔서비스
식음료/엔터테인먼트	항공노선 접근성	호텔객실의 가격	매력물	안전과 위생
항공노선 접근성	숙박 및 식음료비용	사회/정치적 안정성	기후와 환경	식음료 이용가능성
전시시설	전반적인 가격수준	회의스텝의 현장도움		호텔비용
고속도로 접근성	도시이미지	컨벤션/호텔경영효율성		회의시설의 규모
지역적 순환성	교통비	숙박시설의 질		회의/전시장 비용

주 : ASAE(1992)는 Oppermann(1996)에서 재인용

3) 김성섭 외(2001)에서 재인용함.

and Weber, 2002). 컨벤션센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컨벤션센터 자체도 숙박, 쇼핑,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최승담, 1995; Go et al., 2002). 전재균(2003)은 성공적인 국제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개최지의 수용환경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철원 외(2005)는 실증조사를 통하여 컨벤션 개최지의 매력도가 참가자의 만족도 및 사후 반응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협회 회원이 컨벤션에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목적지의 결정과정과 유사하여(Oppermann and Chon, 1997), 컨벤션 장소의 적합성이 참가의 가장 큰 이유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Price and Becker, 2002).

예를 들면, 미국 플로리다의 올란도시는 1981년 컨벤션의 개최건수가 미국 전채도시 중 27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디즈니월드의 본격적인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Epcot Center(1982년)와 Disney-MGM Studio, Typhoon Lagoon(1989년)이 모두 개장한 1990년에는 2위로 급격히 상승하였다(Successful Meetings Magazine, 1983 & 1993)⁴⁾. 컨벤션 도시로의 급부상에는 온난한 기후, 양호한 호텔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으나 디즈니월드의 상징성 및 연간 수천만 명에 이르는 입장 규모를 감안할 때 도시의 매력 또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지명도가 컨벤션

개최도시의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장소의 독특성은 국제적 컨벤션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Polivka, 1996)⁵⁾.

그밖에 Crouch and Ritchie(1998)는 기존의 연구가 개최지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만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선택속성이 있다는 연구명제를 제시하였다. 즉 대형 협회는 회의와 숙박시설의 적합성과 지역의 지원 정도를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성이 강한 협회는 그렇지 않은 협회보다 접근성과 회의·숙박시설의 수준, 기타 개최지에서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기회에 비중을 두는 반면, 레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관심은 약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회의에서는 접근성, 입지환경, 지역의 지원과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역사가 짧은 협회는 멤버십을 강화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수익을 내는 개최지를 선호하는데 반하여 오랜 역사를 갖는 협회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는 한편 몇 가지 선택속성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2. 컨벤션도시 평가척도 개발

컨벤션도시의 평가는 회원의 참가 및 만족과 관련된 개최지의 다양한 속성(장소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문헌

4) Judd(1995)에서 재인용함.

5) Price and Becker(2002)에서 재인용함.

에서 나타난 선택속성을 먼저 유형화하면, 컨벤션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직접 관련부문(컨벤션서비스)과 간접 관련부문(컨벤션 도시환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컨벤션을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구성된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이해할 때 컨벤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는 핵심요소이고 회의시간 이외의 여가 활용 및 동반자를 위한 레저서비스(관광, 스포츠를 포함한 레저활동)나 기타 개최와 관련된 환경은 부가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핵심서비스인 컨벤션서비스의 경우 회의, 전시, 숙박 및 식음료로 구분할 수 있고, 선행연구의 개최지 선택속성 중 직접적인 컨벤션서비스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가서비스의 경우 참가자의 관광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관광자원, 그리고 회의 개최와 관련된 지역의 환경은 유치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개최지 선택속성을 ‘숙박’, ‘회의’와 ‘기타’로 분류한 Qu et al.(2000)의 연구 및 성공적인 국제회의의 세 가지 조건을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개최지의 수용환경’으로 파악한 전재균(2003)의 주장과 유사하나,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관광자원과 유치환경으로 세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컨벤션 도시의 경쟁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항목 이외에 몇 가지 핵심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컨벤션시설과 매력적인 도시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컨벤션의 원활한 운영능력을 들 수 있다(김철원 외, 2005; Go and Zhang, 1997). 국제회의가 증가하고 컨벤션이 첨단화, 대형화되면서 단순한 서비스차원을 넘어 운영진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컨벤션센터의 크기 또는 시설의 이용가능성이 컨벤션 개최장소의 선정과정 중 수용능력이 부족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1차적 기준(Fenich, 2002)이라면 운영능력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컨벤션센터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전략경영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원준거시각 또는 경영자원이론(resource-based view)과 맥락을 같이한다.

자원준거시각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자원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방호열, 1999). 이 이론은 본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직 전체의 관계나 팀워크에서 창출되는 조직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방호열, 1999; 장세진, 199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컨벤션도시에 있어서도 회의, 숙박, 레저 등 개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각 부문간 통합조정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도시내 관련 산업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컨벤션부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의 경우 이러한 협력체계는 더욱 강조된다(Price and Becker, 2002).

한편 레저·오락기회와는 별도로 쇼핑관광지로서 도시의 매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 미국 미시간주 인접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한 김대관(2002)의 연구에 따르면, 쇼핑은 일반 여행, 드라이브, 관광매력물 방문과 함께 가장 대중적인 레저활동으로서 사람들은 쇼핑을 여행의 이차적인 목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또한 관광기념품을 보면서 여행의 추억을 회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한 곳을 소개(최승담, 2000)할 뿐만 아니라 여행 중의 쇼핑은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손대현, 1998). 또한 기념품과 관련된 지출은 전체 여행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Littrell et al., 1994).

지역의 지원과 교통비는 컨벤션 참가비용과 관계된다. 특히 지역의 지원약속은 국제회의와 대규모 협회행사의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며(Crouch and Ritchie, 1998),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업의 스폰서십에 의하여 충당된다. 비용은 회의 참가 여부뿐만 아니라 컨벤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Parasuraman et al.(1994: 122)는 “특정 거래에서의 만족은 서비스 질, 제품의 질 및 가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Cronin and Taylor(1992)는 서비스 질과 가격, 접근성, 이용성이 소비자의 전반적인 만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여 가격을 소비자 만족의 주요한 결정요소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복된 항목(이미지)을 삭제하고 일부 추가사항을 반영한 컨벤션도시의 경쟁력 평가항목은 <표 3>과 같다. 이미지 항목을 제외한 것은 관광자원 및 유치환경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속성이 개최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인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평가척도에서는 상기 언급된 내용 이외에 원격화상회의 등 컨벤션의 첨단화 추세를 반영하여 회의장비의 적합성을 추가하고, 레저오락기회는 레저·스포츠시설과 (야간)엔터테인먼트기회로 분리하였다.

<표 3> 컨벤션도시 경쟁력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항 목	
컨벤션 서비스	회의	회의장 적합성, 장비의 적합성, 운영의 전문성, 서비스의 질, 비용
	전시	시설의 적합성
	숙박	객실의 적합성, 서비스의 질, 비용
	식음료	시설의 적합성, 음식, 서비스의 질
관광 자원	지역의 매력성, 관광자원, 레저·스포츠시설, (야간)엔터테인먼트기회, 쇼핑	
유치 환경	지역의 환대, 지역의 비용지원, CVB의 협력체계, 기후, 접근 편리성, 교통비용, 안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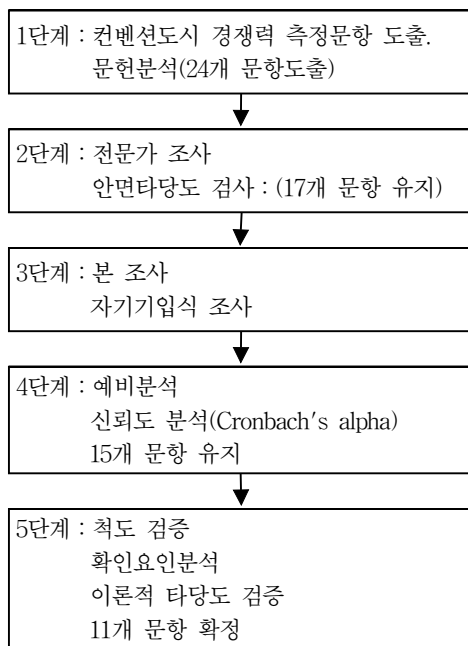
IV. 연구 방법

1. 설문문항의 구성

컨벤션 도시의 경쟁력 평가척도 구성의 절차는 Churchill(1979)의 제안을 기초로 하였다(<그림 2>). <그림 2>에서 제시된 과정 중 1단계는 문헌 분석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의 경우 II장과 III장을 통해서 설명되었다.

2단계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3개 요인 24개의 문항에 대하여 10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의미와 표현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는 안면타당도를 통한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때 전문가는 컨벤션 관련 업종의 근무자 및 컨벤션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의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7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17개의 문항이 예비조사에서 신뢰도를 검증받을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 컨벤션도시 경쟁력 척도 개발 절차

3단계에서는 앞서 선정된 17문항을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컨벤션 개최장소의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통이다”를 중양으로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양끝으로 하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단계는 기초분석 단계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17항목에 대한 내적일관성 분석

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5단계는 척도검증의 단계로 확인요인분석 및 이론적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컨벤션 도시 경쟁력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첫째, 조사는 컨벤션기획가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주요 컨벤션센터(서울 COEX 및 AT센터, 부산 BEXCO, 대구 EXCO, 고양 KINTEX, 제주 ICC)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의 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둘째, 조사방식은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서 2005년 7월과 8월에 실시되었으며 120부의 설문지가 배포, 114부의 유효설문지가 회수되었고(응답률 95%),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특성으로는 컨벤션 기획가(74명)가 컨벤션 센터의 관계자 (40명)보다 많았으며, 높은 응답률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응답율로 인하여 별도의 무응답 검증(Non-response test)은 실시하지 않았다.

V. 분석결과

1. 예비분석결과

문헌고찰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17개 문항의 신뢰도를 크론바하 알파계수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결과 3개의 구성요인(컨벤션서비스, 개최도시 관광자원, 개최도시의 유치환경)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더불어 각 하부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전체의 17개 문항은 .888으로 나타났고 3개의 구성요인은 각각 .812, .893, 그리고 .80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요인에 대한 항목-전체 상관관계 및 항목 제거 시 알파계수를 분석한 결과, 개최도시의 관광자원요인에서 개최장소의 매력성, 그리고 개최도시의 유치환경요인에서 개최도시의 안전 및 사회·경

제적 안정 항목이 제거되었다. 개최장소의 매력성의 경우 높은 중요성($M=5.82$)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성요인의 다른 항목들과 의미상 중복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삭제하였다.

2. 확인요인분석

측정항목을 정제하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Amos 4.0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는 카이제곱(작을수록 바람직) 및 p값($\geq .05$ 가 바

<표 4> 도시경쟁력지표의 신뢰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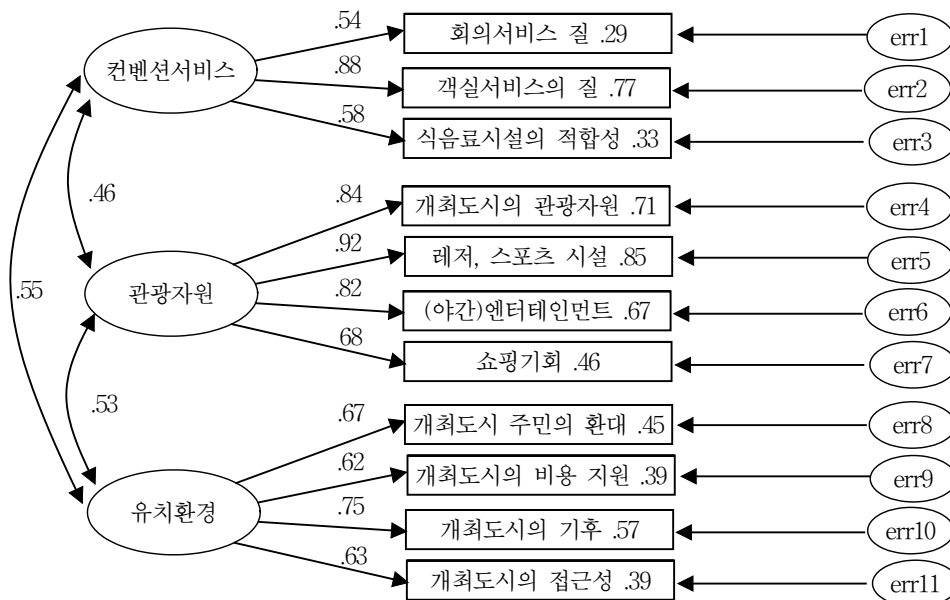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해당요인		전체항목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제거 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제거 시
컨벤션서비스				.812		
회의운영의 전문성	5.75	1.069	.444	.811	.406	.886
회의서비스 질	5.77	.996	.529	.792	.448	.884
객실의 적합성	5.45	1.090	.535	.792	.491	.883
객실서비스 질	5.20	1.057	.716	.750	.607	.879
식음료시설의 적합성	5.14	1.088	.570	.784	.456	.884
식음료서비스의 질	5.41	1.071	.657	.763	.452	.884
개최도시의 관광자원				.884		
개최장소의 매력성*	5.82	1.287	.606	.886	.539	.881
개최도시 관광자원	5.53	1.264	.813	.836	.659	.876
개최도시 레저스포츠시설	4.89	1.286	.791	.841	.660	.876
개최도시 야간엔터테인먼트	4.99	1.093	.766	.850	.600	.879
개최도시 쇼핑기회	4.89	1.147	.642	.876	.552	.881
개최도시의 유치 환경				.798		
개최도시의 현대	4.62	1.258	.565	.764	.476	.884
개최도시의 비용지원	5.18	1.133	.537	.770	.521	.882
개최도시의 기후	4.86	1.226	.617	.751	.534	.881
개최도시의 접근성	5.69	1.074	.636	.749	.565	.880
개최도시까지 교통비용	5.28	1.223	.565	.749	.441	.885
개최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정*	5.28	1.186	.407	.800	.589	.879
						.888

* 신뢰도 분석과정에서 삭제

람직), GFI(Goodness-of-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05보다 작을수록 바람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rximation, $\geq .08$ 이면 어느 정도 양호)가 사용되었고, 충분적합지수로 는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 NFI(Normed 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 CFI(Comparative 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가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작을수록 우수)가 사용되었다.

제안된 모형을 확인요인분석한 결과, GFI는 .796, AGFI는 .731, RMR은 .119, NFI는 .739, CFI는 .829, RMSEA는 .107로서 카이제곱 값 ($\chi^2=267$, $df=11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포함하여 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가 각개 검증방식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 수정지수 10을 기준으로 삼음)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6개의 문항을 삭제 최종 11문항을 선정하였다. 수정 모형에서는 카이제곱 값($\chi^2=48$, $df=41$, $p>.201$)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GFI는 .927, AGFI는 .883, RMR은 .064, NFI는 .911, CFI는 .985, RMSEA는 .040으로 나타났다. AGFI의 경우 기준인 .090보다는 작게 나타났다으나 통상 GFI값보다 작게 나오며 .85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면(Bentler, 1990), 수정된 요인구조 모형은 추가분석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C의 값 역시 제안된 모형 (282.457) 보다 수정된 모형(98.322)에서 작게



주: 실선 위 및 항목 속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및 다중상관치를 의미함.

<그림 3> 11항목 3개요인 도시경쟁력 척도 모형

나와 모형의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삭제된 6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컨벤션 서비스의 경우 회의 운영의 전문성, 숙박 객실의 적합성, 식음료서비스의 질이 제거되고, 회의 서비스의 질, 객실서비스의 질, 그리고 식음료 시설의 적합성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각 시설별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개의 항목 중 하나가 제거되고 한 개의 문항만이 유지되었다. 관광자원의 경우 개최장소의 매력성은 관광자원에 포함되는 기타의 항목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제거되었고, 마지막으로 유치환경의 경우 지역협의체의 협력체계와 개최도시까지의 교통비용, 안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이 삭제되었다. 그 중 교통비용의 경우 개최도시의 접근성과 많은 부분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삭제로 인한 정보의 손실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론 타당도 검증

측정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를 사용하였다. 수렴타당도란 똑같은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척도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이장주·박석희, 1999).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개 컨벤션 센터(서울 COEX, 부산 BEXCO)에 대한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선호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센터에 대한 선호도와 도시경쟁력 척도를 이용한 개별항목에 대한 개최후보지로서의 평가의 평균

과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5> 참조).

<표 5> 수렴타당도 검증

		측정척도(평균)	
		서울	부산
선호도	서울	.224**	.060
	부산	.178	.265**

** p<.01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척도를 이용한 항목들의 평균과 선호도사이에는 서울 부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연구는 회의기획가의 관점에서 컨벤션 개최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측정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컨벤션 개최지 선정과정에 관한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컨벤션 개최지 선정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회의기획가가 성공적인 컨벤션 개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개최지 선택속성을 제시하였다.

개최지 선정과정에 대하여는 협회, 회의기획가 및 회의 참가자의 관점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협회회의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성립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회원의 참가 촉진과 참가한 회원의 만족도 제고’는 협회라는 구매센터의 운영 및 구조와 관련된 사항(협회요인)에 우선하여 회의기획가가 컨벤션 개최지 선정 시 고려해야만 하는 핵

심요인(장소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컨벤션 개최지 선택속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하였는데, 기존 연구는 회의기획가와 참가자의 입장에서 주로 호텔 또는 회의 개최지역의 수용환경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선택속성으로 인용된 빈도 및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컨벤션 개최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회의·숙박시설의 적합성, 서비스 질이 가장 중요한 개최지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원의 컨벤션 참가는 관광자의 관광목적지 결정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의 매력성, 안전 등 개최지의 수용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개최지의 다양한 속성을 유형화하면, 컨벤션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컨벤션서비스와 간접 관련부문인 컨벤션 도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컨벤션 도시환경은 다시 참가자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회의개최와 관련된 유치환경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총 3개 요인(컨벤션서비스, 관광자원, 유치환경)에 24개의 선택속성이 도출되었고, 전문가 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11개 항목이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컨벤션 개최지 선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와 회의기획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있는 컨벤션도시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외국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컨벤션 개최지의 선정이 대부분 회의기획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기획가의 선택속성은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노용호(1998)는 회의기획가보다 협회 회장이나 임원진이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국내 회의기획가 및 대형 협회를 대상으로 회의개최지 선정과정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평가척도가 과연 회의 개최지의 선정이나 컨벤션도시의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실증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이미지’를 평가항목에서 제외 한 것은 컨벤션 목적지에 대한 평가를 인지적인 측면에 국한시킴으로써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브랜드’ 또는 ‘평판’(reputation)을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관, 2002, “관광객 쇼핑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3): 211~232.
- 김성섭·임재문·이형룡, 2001,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한 국제회의 평가: ISR2001 국제회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6(2): 257~274.
- 김용관(역), 1999, 『컨벤션 경영론』, 서울: 일신사(Weirich, M., 1999, *Meetings and Conventions Management*).
- 김철원·박유미·이향정, 2005, “컨벤션개최지의 이미지

- 가 만족도 및 사후반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8(4): 273~294.
- 노용호, 1998, “회의특성과 형태에 따른 회의시설 선택요인 연구”, 『관광레저연구』, 10(1): 97~113.
- 박정화 · 정재탁 · 유영근, 2002, “호텔 컨벤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4(1): 5~18.
- 방호열, 1999, “자원준거시각의 실증적 검증에 관한 논의”, 『전략경영연구』, 2(1): 1~22.
- 손대현, 1998, “관광토산품의 진흥정책 방향”, 『관광학연구』, 21(2): 320~326.
- 이장주 · 박석희, 1999,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진도 영등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43~261.
- 장세진, 1998, “경영자관론과 기업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전략경영이론의 최근 동향”, 『전략경영연구』, 1(1): 49~73.
- 전재균, 2003, “국제회의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일본, 중국의 아시아 3국의 포지셔닝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5(1): 249~264.
- 주현식, 2001, “컨벤션 참가동기, 개최지속성, 만족 및 재참가 의도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13(2): 193~210.
- 최승담, 1995, “컨벤션산업의 발전과 전략”, 이연택 외 8인, 『세계화시대의 관광산업: 발전과 전략』, 서울: 일신사.
- 최승담, 2000, “관광기념품 선호도 및 개발 활성화 전략: 일본, 미국, 중국 시장조사의 시사점”, 『관광연구논총』, 12: 13~26.
- 한국관광공사, 2002, 『2001 국제회의 개최현황』.
- 한국관광공사, 2005, 『2004 국제회의 개최현황』.
- 황희곤 · 김성섭, 2003, 『미래형 컨벤션산업론: 마케팅과 경영』, 서울: 백산출판사.
- Baloglu, S. and Love, C., 2005, “Association meeting planners’ perceptions and intentions for five major US convention cities: Th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images”, *Tourism Management*, 26: 743~75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Choi, K., 2002, “Classifying a hotel’s activities for strateg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2): 65~82.
- Churchill, G. H.,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February): 3~7.
- Clark, D. and McCleary, K., 1995, “Influencing associations’ site selection process”,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36(April): 61~68.
- Cronin, J. and Taylor, S., 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July): 55~68.
- Crouch, G. and Ritchie, J., 1998, “Convention site selection research: a review, conceptual model, and propositional framework”, *Journal of Convention & Exhibition Management*, 1(1): 49~69.
- Crouch, G. and Weber, K., 2002, “Marketing of convention tourism”, in K. Weber and K. Chon(Eds.),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Fenich, G., 2002, “Convention center ownership and managemen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 K. Weber and K. Chon(Eds.),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Go, F. and Govers, R., 1999, “The Asian perspective: which international conference destinations in Asia are the most competitive?”, *Journal of Convention & Exhibition Management*, 1(4): 37~49.
- Go, F. and Zhang, W., 1997, “Apply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Beijing as an international meeting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4): 42~49.
- Go, F., Govers, R. and Vilegenthart, A., 2002, “Planning and development issues for the convention industry”, in K. Weber and K. Chon(Eds.),

-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Judd, D., 1995, "Promoting tourism in US cities", *Tourism Management*, 16(3): 175~187.
- Ladkin, A., 2002,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convention industry", in K. Weber and K. Chon(Eds.),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Littrell, M., Baizerman, S., Kean, R., Gahring, S., Niemeyer, S., Reilly, R., and Stout, J., 1994, "Souvenirs and tourism styl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1): 3~11.
- Oppermann, M., 1996, "Convention destination images: analysis of association meeting planners' perceptions", *Tourism Management*, 17(3): 175~182.
- Oppermann, M. and Chon, K., 1997, "Convention participation decision-making proces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1): 178~191.
- Parasuraman, A., Zeithaml, V. and Berry, L., 1994, "Reassessment of expectations as a comparison standard in measuring service qualit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58(January): 111~124.
- Price, C and Becker, C., 2002, "International meeting management", in K. Weber and K. Chon(Eds.),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Qu, H., Li, L. and Chu, G., 2000,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ong Kong a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destination in Southeast Asia", *Tourism Management*, 21(6): 643~648.
- Upchurch, R., Jeong, G., Clements, C. and Jung, I., 1999, "Meeting planners' perceptions of site selection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Korea", *Journal of Convention & Exhibition Management*, 2(1): 15~35.
- Weber, K. and Chon, K., 2002, "Trends and key issues for the convention indust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K. Weber and K. Chon(Eds.), *Convention Tourism: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dustry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NY.
- Weber, K., 2001, "Meeting planners' use and evaluation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Tourism Management*, 22(6): 599~606.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10월 18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11월 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12월 27일